

금요 양성 2026년 10월 23일

단위형제회와 나누시오.

권고 14와 16

권고: 프란치스칸 초기 문헌 1권 128쪽 [The Admonitions: FA:ED, vol. 1, p. 128](#)

“...프란치스코의 이 스물여덟 가지 가르침은 그의 성서적 사상과, 그 가르침을 일상의 평범한 경험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적용했는지를 이해하는 통찰을 제공한다.”

[권고 14: 영의 가난] 프란치스칸 초기 문헌 1권 128쪽 [FA:ED, vol. 1, p. 133](#)

¹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5:3}

²여러가지의 기도와 일에 열중하면서 자기 몸에 많은 극기와 고행을 행하지만, ³자기 육신에 해가 될 것 같은 말 한마디에, 혹은 자기가 빼앗길 것 같은 그 무엇에 걸려 넘어져 내내 흥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⁴이런 이들은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정 영으로 가난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자기 뺨을 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마태 5:39}

우리 회칙에서

회칙 제 11조. 성부를 신뢰하신 그리스도께서는 피조물을 관심 있게 또 좋게 보셨지만 당신과 당신의 어머니를 위해서는 가난하고 겸손한 생활을 택하셨다. 이와 같이 회원은 물질적 욕구를 줄임으로써 현세의 재물로부터 벗어나고 사용에 있어서도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것이며, 복음에 따라 자신은 하느님 자녀들을 위해 받은 재물의 관리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회원은 ‘행복 선언’의 정신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는 ‘순례자나 나그네’와 같이, 소유욕과 지배욕 및 그러한 모든 경향에서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한다.

[16. 마음의 깨끗함] 프란치스칸 초기 문헌 1권 128쪽 [FA:ED, vol. 1, p. 134](#)

²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마태 5:8}

²진정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지상의 것들을 멸시하고 천상의 것들을 찾으며, 살아 계시고 참되신 주 하느님을 깨끗한 마음과 정신으로 항상 흠송하고 바라보는 일을 그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회칙에서

회칙 12조. 회원은 내세 행복의 증인으로서, 그리고 자신이 받은 성소 때문에, 마음을 깨끗이 할 의무가 있다. 그리하면 자유롭게 하느님과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권고 14와 16 그리고 그들과 상응하는 회칙을 읽고 생각해 보시오. 다음은 형제회안에서나 기도 파트너와의 토론및 저널 쓰기를 위한 질문들입니다.

+ “순례자와 나그네”가 된다는 것은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 삶에 대한 이런 자세를 이해하는 것은 어떻게 “마음이 가난하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까?

+ 우리 회칙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하느님과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깨끗한 마음을 가지도록 이끌어 줍니까?

+ 어떤 소유나 태도가 우리가 진정으로 하느님을 찬미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까?

+ 이 영역에서 회개 요청을 위하여 어떻게 성령께 우리 마음을 열 수 있습니까?